

기성용-한혜진 ‘힐링커플’ 기쁘지 아니한가

또 하나의 스타커플...그들의 스토리

2011년 자선축구대회서 첫 만남 가져
기성용, 힐링캠프 출연 뒤 적극 대시

친구 김우영 다리...같은 종교도 큰 힘
축구화에 'HJ SY 24' 이니셜도 새겨

6월 말 결혼을 앞둔 한혜진과 기성용은 처음 맺어준 것은 ‘축구’였다. 두 사람은 2011년 6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박지성 자선축구대회에서 처음 만났다. 기성용은 선수로 출전했고, 한혜진은 당시 페스티벌 레이디로 참석했다. 이후 기성용의 친구이자 한혜진의 동료 연기자인 김우영도 함께 어울리며 인연을 쌓아왔다.

종교는 두 사람의 인연에 기폭제였다. 기성용과 한혜진은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기성용은 스스로를 ‘스포츠 선교사’라고 자부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다. 기성용은 27일 영국으로 출국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내가 종교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고, 축구를 하는데 있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줬으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기성용이 출연한 SBS ‘힐링



‘축구’로 처음 만난 한혜진과 기성용은 ‘종교’로 가까워졌고, ‘힐링캠프’ 이후 급속도로 친해지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힐링캠프’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로 만난 두 사람의 모습. 사진제공 | SBS

캠프-기쁘지 아니한가’는 한혜진을 향한 기성용의 ‘마음’이 엿보인 대목이다. 기성용은 이상형을 묻는 말에 지체 없이 한혜진을 지목했다. “이런 여자(한혜진)면 바로 결혼한다”는 적극적인 표현도 이어졌다.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기성용의 적극적인 대시가 있어 가능했다.

1월 연인이 된 후 기성용은 간접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 사랑을 표현했다. 트위터에는 ‘H’라는 이니셜을 적었고, 올해 초 ‘진 이’라는 노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에도 한혜진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기성용의 축구화에 새겨진 ‘HJ SY 24’라는 이니셜은 연인에 대한 애



‘사랑의 징표.’ 연인 한혜진의 이니셜인 ‘HJ’와 자신의 이니셜인 ‘SY’, 그리고 그가 활약 중인 스완지시티 유니폼 등번호인 ‘24’를 운동화에 새기며 애정을 과시한 기성용.

뜻함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기성용은 자신의 ‘SY’와 그가 활약 중인 스완지시티 유니폼 등번호인 ‘24’와 함께 연인의 이름인 ‘HJ’를 새겨 옆에 중이라는 의혹을 부추겼다.

한혜진 소속사 나무엑터스 관계자는 “사실 처음엔 편한 동생으로 여기다가 기성용의 적극적인 대시에 마음을 움직였다. 한혜진도 재치 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기성용에게 끌렸던 것 같다”며 “무엇보다 두 사람의 종교도 같고 서로에게 의지가 많이 되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패션헤어 전문 브랜드 헤어커투어와 손잡고 ‘소녀시대표 헤어스타일’로 전 세계 공략에 나서는 걸그룹 소녀시대.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한류의 완성은 헤어...‘소시 스타일’ 뜬다

헤어커투어, SM과 패션 헤어 사업 맞손
멤버들도 개발 참여...아시아 시장 개척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가 ‘소녀시대표 헤어스타일’로 전 세계 공략에 나선다.

패션헤어 전문 브랜드 헤어커투어와 소녀시대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패션헤어 생산 및 유통사업에 나선다.

패션헤어는 패션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 이 긴 머리 스타일을 원하거나 컬러풀한 헤어스타일을 원할 때 착용하는 패션 가발이다. 소녀시대는 그동안 방송이나 콘서트 등 여러 무대와 뮤직비디오에서 형형색색의 패션헤어 스타일을 뽐내기도 했다.

헤어커투어 김민석 대표이사는 27일 “향후

소녀시대 9명 멤버들의 스타일을 활용한 다양한 헤어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소녀시대는 한류시장의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세계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녀시대가 단순한 광고모델로 나서는 광고계약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하는 계약이다. 특히 소녀시대 멤버들이 제품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 개발에도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헤어커투어는 미국을 기반으로 북미와 남미, 유럽 등 20여 개국에서 패션가발을 제작, 유통하는 패션헤어 전문 회사다. 또한 이번 한국사업 론칭을 계기로 중국과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시장을 순차적으로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 @mangoostar



‘영화 많이 봐주세요!’ 배우 이요원이 27일 오후 서울 왕십리 CGV에서 열린 영화 ‘전설의 주먹’ 시사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고영욱, 전자발찌 찰까?

검찰, 부작 명령 청구+징역 7년 구형
연예인 첫 사례...내달 10일 선고 공판



시에 만났다는 사실을 근거로 전자발찌 부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영욱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바 없기에 부작명령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 내내 “호감이 있었고, 강제성은 없었다”고 강조한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 어린 친구들과 신중하지 못하게 만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 알려진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고영욱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기에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항소, 상고로 감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죄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4월10일 선고 공판에서 결정된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 @bsm0007

영원한 젊은 오빠 ‘가왕’ 조용필

새 앨범 19집 ‘헬로’...강렬한 록 등 젊은 음악 지향



‘가왕’ 조용필(사진)이 10년 만에 발표하는 19집 ‘헬로’는 록과 팝, 발라드,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를 담은 ‘젊은 음악’을 지향하고 있다.

27일 소속사 YPC프로덕션은 4월 23일 발표되는 19집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수록곡 10곡 중 대다수는 외국 작곡가의 곡이며 조용필 자작곡은 서울대 송호근 교수(사회학)가 작사한 발라드 ‘어느 날 귀로에서’ 1곡이다.

수록곡들은 세대 구분 없이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고 소속사는 설명한다. 타이틀곡 ‘헬로’는 록 사운드를 기반으로 감각적이고 청량한 사운드와, 한번만 들어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가 중심이 된 곡이다. ‘바운스’는 어쿠스틱 기타 리듬과 피아노 연주를 담은 팝 록이며, ‘겉고 싶다’는 고요하게 시작되지만 장엄한 스케일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가미된 발라드다. 이밖에 경쾌한 사운드의 록 넘버 ‘충전이 필요해’, 브리티시 록의 강한 비트와 감성적인 발라드가 어우러진 소프트록 ‘말해볼까’, 피아노와 기타 연주가 어우러진 모던록 ‘설레임’, 일렉트로닉 사운드에 기타와 오케스트라 연주가 조화를 이룬 ‘그 리운 것은’ 등 젊은 감각의 음악이 수록됐다는 설명이다.

조용필은 이번 앨범의 홍보에서도 ‘젊은 감각’을 보여 왔다. 티저 이미지·영상 공개, SNS 계정 운영 등 신세대 가수들이 주로 쓰는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23일에는 서울 망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데뷔 45년만에 처음으로 쇼케이스도 한다. 이날 쇼케이스는 네이버뮤직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트위터 @ziodadi

연예뉴스 스테이션

김재철 MBC 사장 “방문진 해임 뜻 존중” 사표 제출

해임을 앞둔 MBC 김재철 사장이 27일 오후 사표를 제출했다. MBC는 이날 “김재철 사장이 오늘 오후 임원회의에서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회사의 경영국에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내부 규정상 MBC 사장의 사표는 제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사표 제출은 김 사장이 MBC 역사상 방문진이 해임된 최초의 사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택한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이사회는 26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용준형-구하라 ‘아이돌 커플 부당’...2년 만에 결별

‘아이돌 커플’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비스트 용준형과 카라 구하리가 2년 만에 결별했다. 이들의 소속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6월 교제를 인정한 후 아이돌 커플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큰 부담을 느껴왔다. 최근 각자의 그룹 활동으로 바빠지면서 관계가 소원해져 자연스럽게 이별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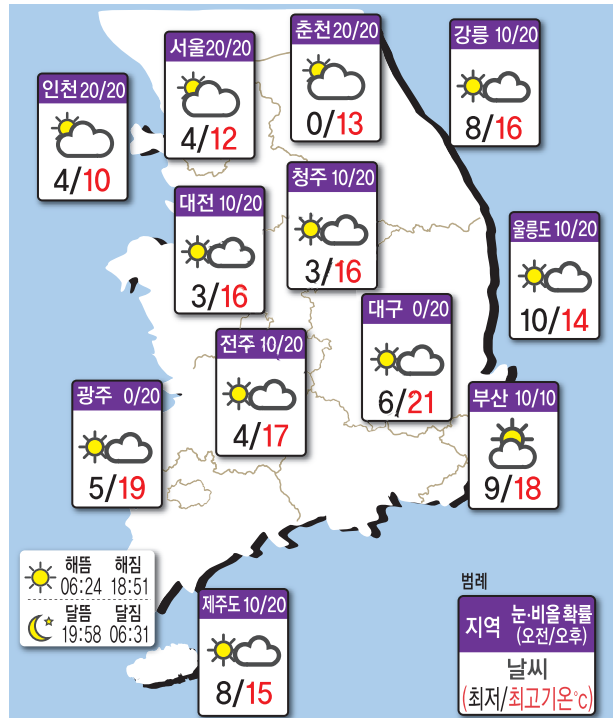
송혜교, ‘독립기념관 안내서’ 점자책 발간 전액 후원

배우 송혜교가 한국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립기념관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서 교수가 기획·제작을 맡고 SBS 수목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시각장애인 역할을 맡은 송혜교가 제작 비용을 전액 후원했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 @mkh2357

오늘의 날씨

3월 28일 목요일 (음력 2월 17일)



주간 날씨 (하루 최고/가장 낮)
29일(금) 0/11 ~ -1/12, 0/13 ~ 2/14, 4/14 ~ 6/11
30일(토) 2/12 ~ -1/12, 0/14 ~ 3/17, 4/15 ~ 5/16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발행인	송대근	대표전화	02 2020 0114
인쇄인	최희영	편집부	02 2020 1039
편집인	이성준	스포츠 1부	02 2020 1052
편집국장	양성동	스포츠 2부	02 2020 1051
광고국장	이승욱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1
		레저경제부	02 2020 1062
		사건부	02 2020 1068
		시원부	02 2020 1038

www.sportsdonga.com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